



금융감독원

## 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

보도

2024.8.8.(목) 09:30

배포

2024.8.7.(수)

담당  
부서자산운용감독국  
자산운용총괄팀책임자  
담당자국 장  
팀 장임권순 (02-3145-6700)  
최지혜 (02-3145-6702)

##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

## I CEO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4.8.8.(목)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

##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4. 8. 8.(목) 09:30~11:00
- ☑ 장 소 :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(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)
- ☑ 참석자 : 금융감독원장, 금융투자협회장, 23개 운용사 대표 등 총 29명
- (금융감독원) 이복현 원장,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
  - (금융투자협회)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, 이창화 자산운용·부동산본부장
  - (운용사) 공모사(16사) : 삼성, 미래, KB, 신한, 키움, NH, 한화, 한투, 우리, 하나, 마이다스에셋, 트러스톤, 신영, 타임폴리오, DS, VIP  
사모사(5사) : NH헤지, 라이프, 수성, 쿼드, 엘라인파트너스  
외국계(2사) : 이스트스프링, 베어링

## II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### 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

-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 
각계각층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
- 먼저,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 
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고,
-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,  
연구기관·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및 실현 가능한  
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 
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며,
-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  
하여 원칙 중심(Principle - based)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 
논의 필요성을 강조

### □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주체인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

- **(스튜어드십 코드 이행)**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 
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,
- 유망한 투자 기회 발굴 및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 
적극적인 주주권 행사, 경영 감시활동 등의 중요성을 강조

- **(시장질서 확립)** 임직원 사익추구,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·준법의식 고취를 당부
- 감독당국도 자격 미달 운용사의 신속 퇴출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등 시장질서 확립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
- **(건전성장 도모)** 최근 ETF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,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- 아울러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

□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인 ‘문화(文化)’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며,

- 이를 위해 8월과 9월 중 간담회,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

### III **참석자 발언 요지 및 향후 계획**

□ 자산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,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전달

- **(기업지배구조 개선·밸류업)**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대부분
- 다만, 일부 운용사의 경우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
-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,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

- **(금투세)**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,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,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,
  -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, 제반 인프라 구축,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
- **(산업 발전 방안)**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,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며,
  - 펀드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함
  - 또한,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필요
  - 아울러, 외국계 운용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

👉 **(붙임1) 자산운용업계 발제 주요 내용**

- 「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」(VIP운용, 김민국 대표)
- 「Tackling the Korea Discount」(프랭클린템플턴, 최혁재 본부장)

👉 **(붙임2) 「자산운용사 CEO 발언 요지」 참조**

- 이복현 원장은 향후에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

※ **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**

👉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□ 「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」

(VIP자산운용, 김민국 대표)

-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
  -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
-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\*, 집중투표제 의무화,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, 금투세 폐지 등 필요

\* 미국, 영국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, 독일에서는 대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

□ 「Tackling the Korea Discount」

(프랭클린템플턴, 최혁재 본부장)

- \* '24.6월, 美 프랭클린템플턴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 요약 발표 (보고서 세부 내용은 다음 URL 참고:  
<https://www.franklintempleton.co.kr/articles/2024/equity/tackling-the-korea-discount>)
-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, 소수주주 권익 경시 및 낮은 자본 효율성 등에 기인
  -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및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
-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, 주주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\* 등 필요

\* 예) 상장 계열사간 합병·주식교환시 가치평가 방법 개선 등

구분	주요 발언요지
기업 지배구조 개선 · 밸류업	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일반원칙 정립 필요
	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도 중요하며, 특히 주주서한 및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전개할 필요
	이사회 독립성 보장,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평가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일반주주의 가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
	밸류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 (법인세 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)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, 금융당국은 운용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, 의결권 행사 공시 등이 강화되도록 장려해주길 바람
	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이와 관련하여 밸류업 ETF 상품 개발 및 출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 필요
금투세	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주주권 보호 및 강화,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, 각종 법률 리스크 (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)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제도적 보완 필요
	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되므로 폐지 필요
	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투자 대비 국내투자의 유인이 저하되어 투자자의 국내투자 감소 및 자금 유출, 단기매매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폐지 필요
	투자자의 국내투자 이탈,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, 거래량 위축 등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폐지 필요
산업 발전 방안	불가피하게 시행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
	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, 장기투자 세제 혜택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 필요
	펀드의 장기투자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참여도 제고 및 단기 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 개선 필요
	인구 고령화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시장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및 퇴직연금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
	ESG 경영 실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해주는 등 정책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
	벤처기업 및 IPO 시장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상장 의무보유기간을 단축시켜야 함
	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증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이 적극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